

미주한인이민 110주년 “더 높은 꿈 향해 준비하자”

2013 미주한인의날 기념 감사예배 및 대합창제

미주한인이민 110주년 및 2013 '미주한인의날' 기념 연합감사예배와 대합창제가 13일 오후 LA제일회중교회 (First Congregational church of LA) 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날 미주한인재단 LA 회장 빈센트 김 변호사, 대회장 이용태 박사, 미주한인재단 전국 총회장 박상원 총회장, 전 농림부 장관 김영진 장로, 미국 국가방위군 조셉 포터 장군,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한인커뮤니티 단체장협의회 대표회장 변영익 목사, 명예대회장 윤성원 목사,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 전국 상임고문 정시우 목사 등이 참석해 '미주한인의날'을 축하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미국 의회와 우리 동포사회가 매년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날'로 기념하는 것은 한인사회가 지난 100여년 간 모범적으로 성장한 데 대한 높은 평가와 자긍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60년 간 다져진 굳건한 토대 위에서, 이제 한·미 양국의 협력 범위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2009년 나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합의하고, 양국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문제와 범세계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광역시 흥인화시의 원이 이를 대독했다.



미주한인재단 USA와 미주한인재단 LA 공동주관으로 13일 열린 미주한인의날 기념 감사예배 및 대합창제 행사 전경.

미주한인재단 박상원 전국 총회장은 축사에서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이민선조들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주한인의날'은 없었고 100년이 되는 2003년에도 '미주한인의날'은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면서 '미주한인의날'이 제정돼 매년 1

월 13일이 미국의 국가기념일이 되었다는 것은 미국에서 한민족의 유산을 이어가는 중심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인 이민역사에 획을 긋는 대사건으로 의미를 갖는다. 우리 모두 미국의 주인으로 자랑스런 미주한인이 되자”고 밝혔다.

또한 이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축사를 전하였고, 백악관 장애정책위원 박동우 위원이 이를 대독했다.

한편, 김영진 장로는 미주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자랑스런 한국인 공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토마스 맹 기자

나성영락교회 담임에 김경진 목사 확정돼



김경진 목사

나성영락교회 제4대 담임에 김경진 목사가 확정됐다. 나성영락교회는 지난 13일 주일예배 후 오후 2시 제직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했고 김 목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제직총회에 앞서 토요일에 이미 김

경진 목사가 나성영락교회를 방문해 새벽예배 설교를 했으며 총회가 열리기 직전 주일예배에서도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교회 측은 “4대 담임목사로 내정된 김경진 목사가 주일예배에서 설교한다”고 이미 주보에 공지한 상태였다.

그는 오는 2월 부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한국에서 익수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익수교회는 2011년 개척된 교회이며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다. 김 목사는 토론토대학 공대를 졸업하고 토론토신학교에서 목회학사, 신학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편, 그는 12일 설교에서 “평소 존경하던 김계용 목사님, 박희민 목사님, 립형천 목사님이 귀한 목회를 했던 이곳에 섰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린다”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준형 기자

CBMC 신년하례 “담대하게 나아가는 한해 되길”

남가주CBMC(기독실업인연합회) 연합 2013년 신년하례 조찬모임이 12일(토) 오전 7시 30분에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다.

남가주CBMC연합회는 월서CBMC, K타운CBMC, 샌디에고CBMC의 연합 모임이다.

이날 설교를 한 남가주교협 회장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간증했다. 그는 “청년시절 매주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개척목회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성도 5명이 넘지 못했을 때 내 안에 불평 불만이 가득했다.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서 특단의 조치로 감사하는 습관을 들였다. 내 마음에 신바람이 나고 목회가 살아나기 시작해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고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경기라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란다. 내 생각으로 끝났다는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지난 12일 열린 CBMC 신년하례 조찬모임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제는 내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길 바란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 될 것”이라면서 “하나님 앞에 용기있게 기도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CBMC가 될때 올 한해 좋은 일이 많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가주CBMC연합회 강동원

회장은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믿음으로 나가는 CBMC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CBMC는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 CLIENTS | RECENT CASES | RESULTS |
|-----------------|------------------|-----------------------|
| K.Y.HWANG | IRS \$63,403.00 | \$6,331.41 (\$100/mo) |
| C.P. RESTAURANT | BOE \$69,300.00 | \$8,456.80 (\$500/mo) |
| N.D. INC. | EDD \$23,983.25 | \$0 |
| M. YIM | IRS \$137,22.49 | \$200/month |
| K.Y.KWON | IRS \$44,471.46 | \$0 |
| T. HAN | IRS \$735,661.94 | \$15,566.00 |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나라정비 ASE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교역자 10% 할인해 드립니다.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기독일보 창간 9주년을 축하합니다.



오렌지카운티 기독교회협의회

역대회장

| | | |
|-----|-------|--------|
| 01대 | 1992년 | 최영빈 목사 |
| 02대 | 1993년 | 정도량 목사 |
| 03대 | 1994년 | 추원호 목사 |
| 04대 | 1995년 | 윤영원 목사 |
| 05대 | 1996년 | 김동운 목사 |
| 06대 | 1997년 | 양금호 목사 |
| 07대 | 1998년 | 정영수 목사 |
| 08대 | 1999년 | 허선규 목사 |
| 09대 | 2000년 | 박학선 목사 |
| 10대 | 2001년 | 정영수 목사 |
| 11대 | 2002년 | 이중은 목사 |
| 12대 | 2003년 | 윤성원 목사 |
| 13대 | 2004년 | 이봉하 목사 |
| 14대 | 2005년 | 윤성원 목사 |
| 15대 | 2006년 | 한기홍 목사 |
| 16대 | 2007년 | 한기홍 목사 |
| 17대 | 2008년 | 신원규 목사 |
| 18대 | 2009년 | 신원규 목사 |
| 19대 | 2010년 | 박용덕 목사 |
| 20대 | 2011년 | 박용덕 목사 |
| 21대 | 2012년 | 엄영민 목사 |
| 22대 | 2013년 | 민경엽 목사 |

제22대 회장단 및 임원 명단

회장단
 회장:민경엽 목사
 기획1부회장:송규식 목사 기획2부회장:윤덕근 목사 목회담당부회장:손병렬 목사 대외담당부회장:박상목 목사
 교육담당부회장:민승기 목사 신학담당부회장:김기동 목사 영성담당부회장:이호우 목사 평신도 담당부회장:박우진 집사

임원

총무:송규식 목사 협동총무:이춘덕 목사 서기:추석근 목사 회계:서준석 집사
 감사:이지수 장로 강순희 집사

분과위원장

신학:오아론 목사 이민목회:오상철 목사 장학:김도영 장로 교육:심상은 목사 선교:신현철 목사 전도:박재만 목사
 언론:이정현 목사 음악:김윤식 목사 홍보:이태중 목사 문화:백낙균 목사 방송:윤우경 집사 복지:노정도 목사
 친교:서양훈 장로 평신도:손찬우 집사 여성:웬디야 목사 구제:최정자 목사 차세대:박종기 목사 청년선교:더글라스 집사
 실버사역:주도진 목사 의료선교:윤재필 집사 캠퍼스선교:김정숙 목사 다문화선교:앤드류 김 목사

이사회

이사장:박용덕 목사 총무이사:엄영민 목사
 이 사:정영수 목사 박학선 목사 윤성원 목사 이중은 목사 양문국 목사 한기홍 목사 신원규 목사

후원이사회

이사장:김영수 장로
 이 사:박항차 장로 손찬우 집사 안윤태 장로 이민중 장로 이준영 집사 이준열 집사 전준홍 장로 정문수 장로 조상현 집사 이은희 집사



회장 민경엽 목사



이사장 박용덕 목사



후원이사장 김영수 장로

“주여, 들으소서!” 남가주 연합기도회 열린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 26일 LA사랑의교회서



26일 남가주 연합기도회를 앞두고 행사 관계자들이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남가주 지역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이사야

6:8)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연합기도회는 오는 26일(토) 오후 4시부터 6시간 동안 LA사랑의교회에서 진행된다. 기도제목은 '가정의 회복', '나라와

민족(선교), 교회의 부흥과 리더를 위해, '개인의 회복' 등이다.

주최측은 이번 기도회와 관련 “각 교회와 교파를 넘어서 마음을 모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 총괄은 박형준 목사(남가주새생명교회)가 맡는다.

이번 기도회는 남가주 지역의 찬양 사역자들이 연합해 찬양과 기도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집회 시간에 자녀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도 마련된다.

주최측은 단체로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예약을 통해 지정된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 (714) 323-1194

토마스 맹 기자

“난 신사참배 죄인”

한경직 목사 일대기 그린 다큐 개봉



故 한경직 목사 탄생 110주년을 맞아 그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한경직'이 오는 18일 개봉 상영된다.

한국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故 한경직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한경직>이 한국에 이어 LA 한인타운 웨스턴 길에 위치한 CGV에서 1월 18일 개봉해 매일 6회 상영된다.

한국 영락교회를 담임했던 한경직 목사는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했다.

성녀로 추앙받는 테레사 수녀, 테제 공동체를 설립한 로저 수사,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 등이 수상한 영예로운 상을 받은 후 한 목사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사참배를 회개해 큰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상금 102만 불은 북한선교를 위해 기부했다.

한경직 목사 탄생 11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이 영화는 영락교회와 울지마 톤즈 제작사인 마운틴픽처스가 공동 제작했다.

천정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독실한 기독교인 배우인 정애리 씨가 나레이션을 했다. 상영시간은 86분.

주소: 621 S. Western Ave. LA

문의: (213) 500-2186

토마스 맹 기자

미주성결교 LA지방회, 신년하례회 개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목사 장로 연합해 치뤄



지난 6일 열린 미주성결교회 LA지방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장로 부부 및 목사 부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주성결교회(KECA) LA지방회(회장 김희창 목사)가 장로 부부와 목사 부부 및 가족들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6일 오후 5시 나성성결교회(정효운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는 1970년 이래 처음으로 목사와 장로들이 연합해 신년하례회를 연 것.

행사는 나성성결교회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한 후 신년하례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됐다.

부회장 조성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에서 김희창 목사(말씀새로운교회)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뎀은 복음이 이 세대에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 목사는 '성결교회 파노라마'를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면서, 성결교회 개척자들의 선교 역사를 설명하기도 했다.

예배는 부총회장 최대영 장로(시온교회, 시온약국)의 축사에 이어 송증복 전 총회장(한빛선교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신년하례회에서는 김희창 목사의 진행 하에 지방회 교회와 교역자 장로 부부의 소개가 있는 후, 김승욱 부회장의 진행으

로 지방회 내 장로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경품이 교역자들에게 제공됐다.

또한 이날 LA장로회연합회가 창립되었으며, 초대 회장에 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을 역임한 나성성결교회 안민구 장로, 부회장에 최대영 장로(남가주장로성가단장, 시온교회), 총무에 정부상 장로(Joshua Chung Violin 대표, 연합선교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행사는 지방회 내 교회들을 위한 중보기도회에 이어 류종길 목사의 기도회로 모두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설날맞이 쌀 기부 행사 열린다

방주교회, 노인들에 사랑의 쌀 250포 전달

내달 10일 설날을 맞아 방주교회(김영규 목사)가 비영리단체 해피빌리지, CGV 아메리카와 손잡고 한인 독거노인들에게 훈훈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는다.

특별히 이번 행사를 위해 CGV 아메리카는 쌀 250포대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영화관람 고객의 쌀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칭 기부 이벤트'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중 CGV 멤버십 가입자는 적립된 포인트 중 300 포인트를 CJ 반반미 1포대 교환권과 맞바꿀 수 있는데, 이 교환권을 한인마켓에 주고 쌀을 수령하면 자동적으로 쌀 한 포가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되는 형식이다.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며, 쌀은 내달 7일 정오 타운에 위치한 필그림 루터교회에서 열리는 방주교회 주

최 '사랑의 무료 점심식사'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전달된다.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는 “가족의 품이 그리워지는 설날 명절을 맞아 한인 단체는 물론 기업과 교회가 힘모아 어르신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이같은 행사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면서 많은 한인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10일 열린 '사랑의 무료 점심식사' 행사에서는 미주 한인인의 날 110주년을 기념해 LA한인회 배무한 회장과 이상훈 이사장도 참석해 배식을 도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에 이어 성조기와 애국가를 함께 합창했고, 참석자 모두 만세 삼창을 하며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했다.

문의: (213) 368-2707

정한나 기자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아메리칸 스포츠대학교

대한 신학대학교 스포츠학과에서는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태권도 골프 체조를 통해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학사과정 모집
- 전문인 선교에 관심 있는 분
- 전공과목: 골프, 체조, 태권도
- 골프를 배우고 싶은 어린이(7~11세)환영 (픽업가능)
-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문의전화: 310-598-0746
- 문의전화: 310-598-0746 | e-mail: mr.jacob601@hotmail.com
- 주주: 3128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 체조, 태권도 323-608-1010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를 유명한 한동규 박사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품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미주성결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교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의 사람, 성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라!

★ 미주성결대학교/신학대학원의 특징 ★

- * 온전한 구원, 거룩한 생활 (The Full Salvation, The Holy Life)
- * 부흥하는 기독교미주성결교회가 설립/운영하는 교단 신학대학
- * 졸업 후 절차에 따라 남녀 목회자 안수하며, 선교사와 전문상담가 등으로 사역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및 ABHE 회원 가입 (Candidate Institution)
- * 한국과 미국 어디서든 가능한 온라인 강의
- * 성적과 자격에 따라 다양한 장학금
- * 편리한 위치에 현대식 도서관과 휴게실 등 좋은 학습환경

학위과정
 학 부: 신학사 (B.Th.)
 대학원: 목회학 석사(M.Div.), 상담학 석사(M.C.C.), 선교학석사(M.M.)

입학지원 절차

1. 기본자격: 중생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고 목회자나 기독교 지도자가 될 소명감이 확고한 자.
2. 원서접수: 1월 20일 까지
3. 입학서류: 본교 소정 양식 (웹참조)
4. 전형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 (장학생 선발)
5. 개 강: 1월 28일

겨울학기 집중강의 (2013년 1월 7일~ 25일)

총장: 류종길 명예총장: 이정근 이사장: 조종곤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 www.aeui.org

22대 OC교협 민경엽 회장 취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013년”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제22대 이취임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에서 7번째가 민경엽 목사, 8번째가 직전 회장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교협) 회장에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담임)가 취임함으로써 본격적인 금년도 활동을 시작할 태세다.

지난 13일 오후 OC교협은 나침반교회에서 지역교계 및 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이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이취임예배는 나침반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부채춤과 태권도 시범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OC교협 발자취를 지난 22년간 역대 회장단의 사역을 영상으로 돌아보는 순서를 가졌고, 오정현 목사(서울사랑의

교회)와 장영춘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손병렬 목사(OC교협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신종은 목사(OC목사회 회장)의 기도와 박우진 집사(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진유철 목사(남가주교협 회장), 최석호 열바인 시장,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장, 한광성 회장(OC-샌디에고평통), 박신옥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론 가르시아 브레아 시장이 메시

지를 전하는 등 교계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협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다.

올해 OC교협의 주된 사역 계획은 다음과 같다. 2월 16일(토) OC지역기관장 초청 조찬예배, 3월 7일(목), 15-17일 이동원 목사 초청 영적대각성집회, 3월 31일(일) OC지역 부활절연합새벽예배(OC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공동주관), 5월 16일(목) 사모 블레스 나이트, 6월 22일(토) 청소년 크리스천 텔런트 경연대회 및 문화선교행사, 8월 15일(목) 8.15광복절 기념감사예배, 9월 7-9일 차세대교회

정착과 부흥을 위한 교육세미나, 12월 사랑의 쌀 나누기 등이다.

특히 OC교협은 월례회를 통해 정치인과 학자, 단체장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 인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서로 협력하는 미주한인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 고령화를 방지하고 1세대의 신앙유산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이임자는 회장 엄영민 목사, 이사장 윤성원 목사, 후원 이사장 정호영 목사, 취임자는 회장 민경엽 목

사, 이사장 박용덕 목사, 후원 이사장 김영수 장로와 부회장단(기획1부회장:송규식 목사 기획2부회장:윤덕곤 목사 목회담당부회장:손병렬 목사 대외담당부회장:박상목 목사 교육담당부회장:민승기 목사 신학담당부회장:김기동 목사 영성담당부회장:이호우 목사 평신도담당부회장:박우진 집사)과 임원(총무:송규식 목사 협동총무:이준덕 목사 서기:추석근 목사 회계:서준석 집사 감사:이지수 장로 강순희 집사)과 분과위원장(신학:오아론 목사 이민목회:오상철 목사 장학:김도영 장로 교육:심상은 목사 선교:신현철 목사 전도:박재만 목사 언론:이정현 목사 음악:김윤식 목사 홍보:이태종 목사 문화:백낙균 목사 방송:윤우경 집사 복지:노정도 목사 친교:서양훈 장로 평신도:손찬우 집사 여성:웬디유 사모 구제:최재자 목사 차세대:박종기 목사 청년선교:더글라스 김사 실버사역:주도진 목사 의료선교:윤재필 집사 캠퍼스선교:김정숙 사모 다문화선교:앤드류 김 목사)과 이사회(박용덕 목사 총무이사:엄영민 목사 이사:정영수 목사 박학선 목사 윤성원 목사 이종은 목사 양문규 목사 한기홍 목사 신원규 목사)와 후원이사회(이사:박학차 장로 손찬우 집사 안윤태 장로 이민종 장로 이준영 집사 이종열 집사 전주홍 장로 정문수 장로 조상현 집사) 등이다.

정한나 기자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신년예배 드려



2백여명의 성결인이 참여해 열린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행사 전경.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신년예배가 13일(일) 오후 4시 성문성결교회(김광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200여명의 성결인이 참여해 자리를 빛내고 올 한 해 복음을 힘차게 전파할 것을 다짐했다.

예배는 사회 남가주교역자회 회장 윤석길 목사, 기도 남가주교역자회 부회장 신현철 목사, 설교 성문교회 담임 김광수 목사, 축복기도 인도 남서부지방회장 김창수 목사, LA지방회장 김희창 목사, 원로 이기홍 목사, 광

교역자회 총무 최재성 목사, 축도 성광회 회장 홍순도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합심기도 시간에는 △목회자 자녀 △사모 △목회자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은혜로 남은 자’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김광수 목사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먼저된 우리들을 통해 2013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세계에 확장되도록 힘쓰자”고 했다. 이어 신년 하례회를 통해 지방회 별로 가지기도 했다.

한편, 미주성결대학교에서 2013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추천하는 평신도 지원자에게도 특별장학금이 지원된다. 개강은 1월 28일이며 25일까지 원수접수가 가능하다.

토마스 맹 기자

테너 김준만과 함께 하는 신년음악회

태국 및 미얀마 불우아동돕기 일환

한국이 낳은 유럽 정상의 현역 오페라 가수, 테너 김준만 씨가 신년을 맞아 자선음악회 ‘축복의 소나기’를 연다. 오는 27일 오후 4시 한인타운에 위치한 갈보리민음교회(3300 Wilshire Blvd., LA)에서다.

테너 김준만 씨는 그간 유럽을 중심으로 1200여 무대에서 폭발적인 파워와 풍부한 감성을 소유한 오페라 가수로 명성을 떨쳐 왔다.

이번 음악회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불우아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테너 김준만 씨 외에도 내로라 하는 소프라노 가수들이 나서 무대를 아름다운 화음으로 수놓는다.

KBS 및 중앙공중에서 1위를 수상한 소프라노 최정원 씨와 LA 오페라



‘축복의 소나기’ 자선 음악회 홍보 전단지

주역가수인 소프라노 샤나 블레이크 힐, 매력적인 목소리의 소유자인 소프라노 황해경 씨, 그리고 리릭 소프라노 샤론 김 씨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밖에도 은퇴한 미국인 뮤지션들이 모여 만든 ‘해피 재즈 밴드’도 출연해 다채로우면서도 멋진 공연을 연출한다. 음악회 관련 문의는 전화 (818) 395-2031로 하면 된다.

정한나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는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관련 정보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ESL, AAS, Medical Office Management, Business Management, Accounting,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선교전략, ‘한국형’과 ‘현지형’ 사이 공통분모 찾아야”

KWMA 사무총장직 연임한 한정국 목사 인터뷰



KWMA 한정국 사무총장

최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제23차 정기총회에서 한정국 목사의 사무총장직 연임이 확정됐다. 한정국 사무총장은 취임 소감에 대해 “연합이라는 것이 깨지기 쉽지만 만들면 아름다운 그릇이다. 선교계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지 말고 역할 분담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연합운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내 및 국제적 동반사역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로잔연약이 언급한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적(에반젤리칼)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선교의 연합과 일치에 에큐메니칼한 정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선교계만은 복음주의의 선교신학과 함께,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한국교회와 한국의 문제를 선교적인 관점과 선교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제안하며 “일반적으로 ‘그 신학’(the Theology)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국 신학과 미국 신학이 있을 뿐이다. 새벽기도는 한국적인 기질에 문화의 옷을 입혀 놓은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같은 한국형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반대한다. 기와집 교회면 어떠한가? 목사는 반드시 정장과 넥타이만 착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사무총장은 이어 “한국형과 현지형 사이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현지 지도자, 서양 선교사, 한국 선교사가 함께 그 지역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논의하고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WMA는 앞서 25년간 유지해 온 기본정책을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정신으로 계승·발전하면서 21세기에 들어와 수 년간 입안 토론하고 결의한 중장기 비전인 Target2030과 MT2030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기존 3自(자립, 자선, 자치)에 2自(자신학, 자신교학)를 더한 5自 정책 ▲NCOWE(선교전략회의)연대 ▲CAS(지역분할, 종족인양, 기능분담) 등을 수립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교지에 상부상조 매커니즘 디자인 개발, 선교 리서치의 선진화와 활성화, 한국형 선교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한 사무총장은 “한국 선교의 미래는 모든 면에서 발전 단계와 함께 성숙을 추구해야 한다. KWMA는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구속력은 없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호 협력을 통해 각 단계가 미처 하지 못하는 대정부 관계, 전국대회,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소 다른 ‘어떤 선교 이슈’에 대한 전략회의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먼저 선교계가 ‘연합’하고 ‘협력’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베리칩은 666?

요한계시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지웅 목사 “베리칩이 짐승의 표 될 수 없어”



이지웅 목사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성경이 아닙니다. 또한 666이나 마켓돈과 같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주제로 한 성경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나 생명의 대 환란과 같은 단어에만 집중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지웅 목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로 ‘두려움’을 꼽았다. 그동안 기독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심판의 날로 해석하면서 정통교회 성도들을 미혹해 왔지만, 원래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을 갖게 하는 성경’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7~12일 시애를 형제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존의 모든 오해를 성경적, 역사적 근거를 들어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했다.

■ 요한계시록 해석, 계시록만 따로 보는 자의적 해석 안돼

그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성경전체를 보지 않고 계시록만 따로 떼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성경전체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하는데, 기본적인 이해 없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때문에, 계시록이 두려거나 무서움을 갖게 하는 성경으로 오해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스가라, 이사야 등 선지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선지서의 단어들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많은데,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록을 보기 때문에 여러 오해가 생긴다고 말했다.

“구약의 역사와 제사법을 바르게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됩니다. 초림 하셨을 때는 고난 받는 어린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의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오심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핍박당하던 시대의 역사적 환란을 알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베리칩, 짐승의 표 될 수 없어

이 목사는 베리칩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베리칩은 짐승의 표 또는 666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표를 받는다’는 구절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바로 다음 절인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는 구절은 영적으로 해석하는데서 오는 오류로 지적했다.

“베리칩을 문자로 해석한다면 14장 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양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도 문자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양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문자로 바로 다음 절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초등학교도 안하는 해석입니다. 한 절 차이인데…….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만 알아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목사는 “인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 유목민들의 전통으로 ‘소유’를 의미한다”며 “짐승의 표를 받거나 인을 찢다는 것은 사단에게 소유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소유 됐다”는 의미이지 절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 미번역 언어 수 앞질렀다

위클리프 최근 통계 발표… “2025년까지 번역 완료” 목표 향해 순항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이하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이 급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밥 크리슨 위클리프 USA 대표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 통계는 매우 중요하며, 2025년까지 모든 언어 공동체에 자국어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제공한다는 우리의 목표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위클리프는 더 시드 컴퍼니(The Seed Company), 에스아이엘 인터내셔널(SIL international)과 같은 기구들과 협력하면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075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은 언어는 약 1,967개다.

이 통계는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의 수가 번역되지 않은 언어의 수를 처음으로 넘는 것이다. 인구로 따지면 남아 있는 1,967개의 언어들 중 대다수는 방언으로서, 약 2억9000만명이 사용한다.

크리슨 대표는 “우리 전의 세대들은 더 많은 언어들이 발견되면서 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았다. 또한 더 많은 번역의 필요성이 증명돼왔다. 지금은 이같은 추세가 역전됐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번역 프로젝트는 새로

운 기술과 전략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 직접 연결된 창조적인 번역 방식이 나오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다.

위클리프는 “효율적인 성경 번역을 위해 새로운 컴퓨터와 위성 기술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또 가난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경제 성장 프로젝트, 의료 혜택, 시장성이 있는 기술 습득을 돕기도 한다. 위클리프 측은 “성경 번역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킨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며 성경을 마무리했다. 강혜진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이름없는 여인이 되어보세요.

특효
한방감기약
(3-5일분) -\$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살리한의대)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신체물
알로에-베라 플루리칸 로션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당뇨병,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ATS 인준 셰퍼드 대학교 신학대학만이 드리는 미래를 위한 높은수준의 편안한 교육

주님을 위한, 세계를 향한
For the Lord, To the World!!

셰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의 사명은 훌륭한 기독교 고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탁월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한국계 학교로 시작하여 미 주류 종합대학으로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셰퍼드와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 미래

- 미군 군교 장교 진출
- 미 주요교단 안수가능

2 높은수준

- ATS 인준 (Candidacy)목회학석사, 목회학박사과정 및 신학 학사 프로그램
- 세계 최고의 영적 리더십을 통한 교육

3 편안한 교육

- 다양한 장학혜택과 저렴한 학비
- 영어강의 / 통역강의

이제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과 더불어 자신있게 공부하십시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박사

베네수엘라 아메리카의 생명 운동의 주체로서 20여년의 성경적 제재학문의 창시자이다. 영성과 교회 성장, 재지 훈련을 주제로 전 세계에 나가 리더십을 발휘하며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며, 그의 책 '재지인-나'가 출판 이후 세계적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그 외 20여권의 책이 한국어로 출판되었으며 현재 셰퍼드 신학 대학에서 영성, 교회성장, 재지도 분야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

영적 전쟁과 내적 자유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지난 수 십년간 미국은 물론 한국, 호주, 독일, 스위스, 태국, 대만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내적 자유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저서로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 '사탄의 영을 대항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능력 기독교' 등이 한국어로 출판,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셰퍼드 신학대학에서 내적자유를 강의 하고 있다.

에드 실보소 박사

Harvest Evangelism의 설립자이자 회장으로서 현재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 선교 전략가이다. 그는 피터 와그너, 잭 웨버, 빌 브라이트 박사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지도를 받고 있고, 그의 모험은 세계 60여 도시에서 도시 및 기업전체를 전도와 선교의 차원에서 변화 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기를', '기도전도', '사업의 기쁨'등, 번역 등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SHEPHERD UNIVERSITY
3200 N. San Fernando Rd., Los Angeles, CA 90065 / info@shepherduniversity.edu / www.shepherduniversity.edu

SEVIS I-20 발행

상담 및 입학문의
323-550-8888


제 38대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취임 감사 예배

취임회장 **홍순헌 장로**

일시 : 2013년 1월 20일(일) 오후 5시

장소 :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
2149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18

문의 : 213) 304 - 9191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미주장신대 신년 동문의 밤 행사 열려

31대 동문회장 김용호 목사 “십자가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동문 가족의 밤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이상명 총장)가 신년을 맞아 ‘동문 가족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오후 풀러튼에 위치한 하워드 존슨호텔에서다.
올 한 해 미주장신대 동문회를 이끌어 나갈 제 31대 동문회장 김용호 목사(세계성경장로교회 부목사)는 인사말에서 “그간 6백여명의 사역자를 미주와 전 세계에 걸쳐 배출해온 모교의 명성에 걸맞게 동문회도 동문 선후배님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탐과

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모교는 물론, 동문들 간에 좋은 소식들이 오고가는 동문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31살의 패기 넘치는 젊은 동문회다. 지금까지 여러 아픔들도 있었고, 상처들도 있었지만 이는 성장하는 필요한 상처들이라 생각한다”면서 “이젠 아픔을 뒤로 하고 보다 아름다운 동문회, 함께 하는 동문회,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동문회가 되길 소망한

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1부 신년예배, 2부 저녁만찬, 3부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말씀은 박충기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잠 16장7절)’라는 제목으로 전했고, 윤근창 이사장의 격려사에 이어 이상명 총장이 축사했다.
한편, 금년도 동문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용호 목사 >부회장 양옥석 전도사 >서기 우상림 목사 >부서기 장성영 목사 >회계 유미숙 전도사 >부회계 차경미 목사
정환나 기자

나성영락교회 담임으로 확정된 김정진 목사, 첫 강단설교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나성영락교회 제 4대 담임으로 확정된 김정진 목사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나성영락교회 토요새벽예배와 주일 1~5부 예배에서 설교를 했다. 그는 12일 오전 6시 분당 강단에 서서 ‘영원한 기쁨의 노래’(시 145:1-7)라는 제목으로,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한 동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평소 존경하던 김계용 목사님, 박희민 목사님, 립형천 목사님이 귀한 목회를 했던 이곳에 섰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린다”며 “한국과 시차가 있어서 조금 멍멍한 감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다.



김정진 목사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며 “인간이 지어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쁨을 주고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고난이 기독교의 상징이다. 따라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죽음의 절망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진흙이 검을수록 연꽃과 같이 피어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고 했다. 또 “진정한 기쁨은 자신의 기쁨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영적 상태, 즉 영적인 충만함”이라며 “이는 현실

보다도 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통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실령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며 “최종 승리를 주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사람이 낙심하면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말씀묵상도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준다. 2013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찬양하자. 그리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히며 말씀을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나성순복음교회, 지역사회에 4만불 기부

열었던 지갑도 다시 닫는다는 불경기이지만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가 최근 약 4만불에 가까운 현금을 교계 및 지역사회 봉사단체에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나성순복음교회는 지난해 추수감사주일 감사헌금을 전액 교계 및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주간 약 3만8천불의 감사헌금이 담지됐다.

이는 그 주간 이 교회의 십일조보다 약 8천불 이상이나 많은 것이었다.

이 교회는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허리케인 샌디 구호기금 1만불을 뉴욕교회에 전달했으며, 전 교계 및 사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눔운동에 5천불을 기부했다.

시각장애우 개인수술을 하고 있는 실로암안과병원에 5천불, 이민신학

연구소에 3천불, 시리아 난민 후원에 2천불, 교도소 성경 후원에 1천불, 사랑의 점퍼 나누기 운동에 1천불 등을 후원하기로 했다.

이 교회는 최근 일부 단체들이 비판받기도 했던 ‘생색내기식 사회 기부’를 탈피해, 교회가 직접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각 분야마다 검증된 전문사역체에 전달했다.

김준형 기자

지저스컬처, 뉴욕 워싱턴퍼런스 라이브 앨범 출시

전 세계적으로 모던위십의 새로운 깃발을 세워나가는 워싱턴 지저스컬처(Jesus Culture)의 뉴욕 워싱턴 라이브 앨범이 출시됐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6월 뉴욕에서 진행된 지저스컬처 워싱턴퍼런스의 실황을 담은 라이브 앨범이다.

지난 2011년 시카고에서 열린 ‘Awakening’ 컨퍼런스를 통해 열광 가운데 이 세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했다면,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특히 모던위십의 레전드 딜리리어스(Delirious)의 리더보컬 마틴 스미스(Martin Smith)의 참여는 컨퍼런스에 촉매제가 되어, 참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에 큰 성령의 불을 일으켰다.

강력한 기쁨부임이 있는 지저스컬처는 이 시대의 워십을 선도해 가는 파워풀한 무브먼트로 발전했다. 단순한 한두 곡의 히트곡을 발표하여 이름을 알리는 수준이 아닌 워십의 트렌트를 선도하고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2장의 CD에 수록된 16곡의 찬양은 시대적, 사회적 상황 속에 다소 침체되어 있는 워십뮤직과 젊은이들의 열정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동윤 기자



워싱턴 〈지저스컬처〉의 뉴욕 워싱턴 라이브 앨범

갈릴리선교교회 신년부흥성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1월 25일(금) ~ 27일(주일)

25일(금) 저녁 7시30분
26일(토) 새벽 6시20분
 저녁 7시30분
27일(주일) 오전 11시

강사 : 심원용 목사 (부천 삼광교회)

한천영 담임목사

<예배안내>

주일 1부 예배 9:00
주일 2부 예배 11:00
Children 11:00
Youth 11:00
새벽기도회(화-금) 6:00
토요새벽기도회 6:20

가족같은 교회 가족이상의 가치

갈릴리선교교회
Galilee Mission Church
2212 S. Western Ave. LA, CA 90018
323-735-6412 www.gmcchurch.com





참숯

크로버 탄소매트

속면! 곰팡이 억제!
항균! 냄새 제거!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초급세사 원단 사용

고급스러운 풀잎 패턴으로
실내분위기와 잘어울립니다.

전자파 차단

매트안에 전기선 대신 곰의소재
탄소원단이 들어가 있어 전자파 걱정을
없였습니다.

원적외선 방사율 90%

일반 전기요와 달리 원적외선 복사열 발산으로
몸 전체를 훈훈하게 하며 원적외선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세 절감

열효율이 뛰어나 전기사용료를 절감해 줍니다.
매일 10시간 사용시 한달 전기사용료 \$3미만

취침기능/온도조절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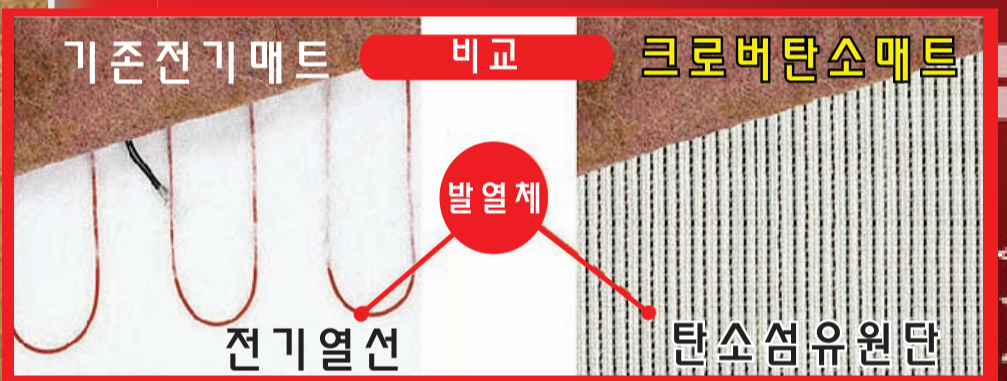
자우 분리난방
10시간이상 사용시 자동꺼짐

물세탁 가능

세계 최초의 발명특허인 방수절연 기능의
특수 4중 "안전코팅"으로 물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세탁 권장)



매트 안을 비교해보세요!



| TWIN | FULL | QUEEN | KING |
|-------|-------|-------|-------|
| \$249 | \$289 | \$349 | \$429 |

크로버 탄소매트로 건강과 따스함을 동시에 선물하세요!



확실한 품질보장
제품문제시 1년간 무상수리



제품 바닥면을
고급 원단에
도트 처리하여
미끄러짐을 방지

베이지

라벤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Los Angeles
* 정스백화점 (213) 389-1111
* 김스전기 (213) 386-4882
* ABC 플라자 (213) 386-1155
* 헬스코리아
-아시마켓 (213) 487-4986
-갤러리아 (323) 733-4986
* N SHOP (323) 734-1234

Fullerton
* 나눔 홈쇼핑 (714) 515-3408
* 헬스코리아 (714) 521-1005
Diamond Bar
* DB 홈마트 (909) 595-7521
Gardena
* Marukai (310) 660-6300
Torrance
* 굿네이버스 (310) 326-6666

Cerritos
* 이불나라 (562) 402-3737
Garden Grove
* 주방나라 (아리랑마켓) (714) 539-8860
San Diego
* 이불나라 (시온마켓) (858) 496-0766
* 굿네이버스 (858) 874-7777
Santa Clara
* 이불나라 (408) 834-3004

무료 배송행사

한국에 계신 부모님, 친지, 지인들께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www.crovergreen.com



제품상담 및
대리점 문의

323-588-7277
info@crovergreen.com
2605 S. Santa Fe Ave. Vernon, CA 90058

동성애 합법화의 나비효과? “소아성애도 정상” 논란

캐나다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미국의 미래도 보인다. 2005년 국가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결혼 부부에게도 이성결혼 부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허락했던 캐나다에서, 이제 ‘소아성애’도 하나의 성적 경향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의 보수언론인 러시 립보는 지난 월요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러시 립보 쇼”에서 “캐나다에서 소아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경향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디언지의 기자인 존 헨리가 쓴 기사 “Paedophilia: Bringing Dark Desires to Light(소아성애, 어둠의 욕망을 빛으로)”라는 기사를 인용했다. 이 기사에서 헨리 기사는 “소아성애를 이성애나 동성애와 같은 일종의 성적 경향으로 분류하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확연히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립보는 “2011년 7월호 하버드정신건강회보에 소아성애는 성적 경향의 일종이며 따라서 변화가 어렵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다. 립보는 “이런 논쟁은 마치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는 것처럼 소아성애

도 정상으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에 대해 동성애 지지자들은 “너무도 충격적이며 터무니 없다”고 비난했다.

이런 식의 접근법에 동성애자들이 극렬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합법화를 외칠 때,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따라서 치료 혹은 변화될 수 없는 고유한 성적 경향이며 인권의 문제”라는 논리를 구사해 왔는데, 만약 하버드정신건강회보에 나온 연구대로

애자들의 꾸준한 법적 투쟁과 기부, 로비, 혹은 대규모 소아성애자 퍼레이드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 다만 지금 우리의 상상 속에서 불가능할 뿐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동성애를 미화하는 교육을 공립학교가 강제하고 있는 형편에서, 30년 뒤쯤이면 소아성애를 미화하는 교육도 합법화되지 말란 보장이 없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그 아이를 동성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향한 정상적인 시각을 갖게 해 주려는 것”이라 말한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소아성애가 정상이며 아름다운 것이라고 배운 어린이가, 소아성애자가 되진 않을 수는 있지만 그 피해자가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진 않지만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의 공혹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절연되어야 할 심각한 죄이며 반드시 다른 종류의 성적 타락을 가져 올 것”이라 말한 한 목회자의 발언이 더 설득력 있지 않은가?

김준형 기자

하나의 성적 경향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

라면 소아성애자들도 “소아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 난, 치료 및 변화되어서 안 되는 성적 경향이자 인권”이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점이라면, 동성애는 성인 간에 이뤄지는 결합이라면 소아성애는 성인이 강제적 혹은 불법적으로 어린이에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3-40년 전만 해도 죄악시되던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었을 뿐 아니라 자연스러워졌다면, 소아성애 역시 소아성

해외 선교사 파송 지속 증가... ‘쏠림 현상’ 은 여전

KWMA 발표 12월말 통계 조사 결과 분석

21세기 들어 외부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교사 재배치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임이 드러났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이하 KWMA) 연구개발실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2월말 통계 조사 결과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사 파송은 169개국 24,742명으로 지난 2011년에 비해 1,41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KWMA 회원 교단과 선교단체를 포함하고, 비회원까지 가급적 폭넓게 협력을 구해 응답한 단체를 중심으로 합산한 결과다.

이 가운데 교단 선교부 소속은 전체의 43%, 선교단체 소속은 57%로,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 선교부 가운데 파송수 1위인 GMS의 선교사 파송수는 총 2,263명(2,129명)에 비해 134명 늘어난 것이다. 다음은 통합측 선교부 2011년 1,237명에서 2012년 1,309명으로 72명 늘었고, 감리회선교국은 2011년(1,184명)보다 118명 늘어난 1,302명을 기록했다.

선교단체들의 선교사 파송수는 한국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인터콥, 국제대학선교협의회 순으로 이어졌다. 인터콥선교회가 2011년 677명에서 2012년 762명으로 85명 증가했으며, 바울선교회는 2011년 323명에서 2012년 398명으로 75명이 증가했다. 두란노해외선교회는 356명에서 380명으로 24명이 늘었다.

KWMA 타겟 2030비전으로 본 개척지수별 선교사 현황을 보면 상당수의 선교사가 전방개척(F) 지역보다 일반선교(G) 지역인 G2, G1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보다 더 전방개척선교가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활동하는 선교지의 경우, 동북아 X국, 미국, 필리핀, 일본, 인도,

태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독일 순이며 169개국 활동 국가 중 상위 10개 국가에 전체 선교사의 50% 이상이 활동 중이어서, 선교사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도 전체 선교사의 52%가 1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상위 10개국은 AX국(3,688명), 북미(1,718명), 일본(1,376명), 필리핀(1,285명), 인도(728명), 태국(622명), 러시아(612명), 인도네시아(597명), 독일(526명), 터키(482명)이었다. 이 가운데 북미와 독일, 그리고 필리핀을 뺀 7개국이 전방개척지역이다.

2012년 전체선교사 25,665명 가운데 전방개척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14,995명으로, 이 가운데 상위 7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59.6%로 나타났다.

한국 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으로 그 가운데서도 동북아시아(6,167명), 동남아시아(4,641명)에 1만명 이상이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는 전체 선교사 수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다. 세번째는 북미 지역이며 네번째는 한국 본부였다. 한국 본부사역에는 선교행정 및 동원 선교사, 비거주 순회 선교사들도 포함됐다.

한국 선교사들의 주요 사역은 지난 해와 동일하게 ▶교회 개척 ▶제자 훈련 ▶캠퍼스·교육 사역 순으로 나타났다.

KWMA는 한국 선교가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전방개척 지역으로의 파송 확대 ▶정확한 수치 파악을 위한 노력 ▶선교현지에서 파악되는 선교사 수 통계 등을 들었다.

KWMA는 “선교사 파송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전방개척지역으로의 파송은 앞으로 한국 선교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北 지하교회 참상, 영화로 나온다

김진무 감독 영화 <사도> 제작... 올 상반기 개봉



(주)태풍코리아가 북한 기독교인들의 박해 실상을 담은 영화 '사도'를 제작한다.

북한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보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실제 내용이 영화로 제작된다.

제작사 (주)태풍코리아는 올해 하반기 개봉을 목표로 스릴러 영화 '사도'(김진무 감독)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영화 '사도'는 북한의 강제적인 체제 아래에서 신앙적인 가치관을 남몰래 지켜나가는 이들이 어떻게 고통 받고, 절망하고, 관계에 균열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예정이다.

북한은 개인의 종교 활동이 발각되면 즉결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평생 노동과 학대 속에 살아야 하는 등 기독교 박해국가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몰래 신앙을 지켜나가는, 통칭 '지하교회'라는 이름으로 정의된 크리스천들이 20만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김진무 감독은 영화 '사도' 제작을

위해 지난 1년간 탈북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진무 감독은 “저널리즘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인터뷰는 새터민들을 만나면서 고통 받는 그들의 자화상을 발견하고, 영혼의 아픔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변화되어갔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리고, 그들의 아픔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주)태풍코리아 측은 “영화 '사도'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눈물의 기록이자, 제작자로서 관객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알리려 제작하게 됐다”며 “북한 인권문제와 이들의 신앙적인 갈등, 강압적인 체제 그리고 그 안의 처절한 인간의 모습들을 최대한 실제 상황에 근거해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화 '사도'는 이달 말까지 모든 출연진 캐스팅을 완료하고 2월 말부터 본격 제작에 돌입한다.

토마스 맹 기자

TOP MEDIA
교회학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앞서는 젊은 스타일에서 살아있는 곳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 단, 컬러만 하시면 \$30 up
매직 스테이트 \$100 up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한기총-NCCK-WEA준비위-WCC준비위 공동선언 발표

다원주의·공산주의 반대 등 '4대 선언' 담겨

한국교회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를 앞두고 공동선언문을 발표, WCC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한국교회에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 WCC 총회한국준비위원회(상임위원장 김삼환 목사), 세계복음연맹(WEA) 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 등 4개 단체는 13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전격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선언문에서 “한국교회는 세계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이 짧은 시간에 눈부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고 이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WCC 총회 개최를 앞두고 한국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표명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언문에는 이들 4개 단체들이 ▲종교다원주의 배격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등 반대 ▲개종전도 금지주의 반대 ▲성경 66권의 무오성 천명 등 4개 원칙에 대한 선언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소위 '4대 선언'에 대해 “WCC 부산총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보수교단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또 이 선언문 말미에서 한기총은 “한기총 산하 모든 보수교단은 WCC 총회한국준비위원회가 개최하는 2013년 WCC 부산총회를 이해하며 이 대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한기총과 NCCK는 2014년 WEA 총회 역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

WCC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

한국교회는 지난 130년 동안 민족의 고난과 역경을 함께하며 괄목할만한 영적 성장과 대한민국의 성장과 성숙을 이끄는 중심에 있었으며, 환난과 전쟁 속에서도 민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이 짧은 시간에 눈부신 부흥의 역사

를 일으켰고 이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 개최를 앞두고 한국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를 표명하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13년 WCC 부산 대회를 앞두고 2013년 WCC 부산대회 개최에 대한 보수교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공동선언문을 선언합니다.

1.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 1)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 2) 우리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행위임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초혼제와 같은 비성경적인 종교 혼합주의의 예배 형태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2. 우리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등 복음에 반하는 모든 사상을 반대합니다.
3. 우리는 개종 전도 금지주의에 반대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행 1:8)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대와 지역과 나라와 종교를 막론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천명합니다.
4.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무오하며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표준임을 천명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모든 보수교단은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개최하는 2013년 WCC 부산 대회를 이해하며 이 대회가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14년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 역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2013년 1월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영주 목사
WEA 총회 준비위원장 길자연 목사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삼환 목사

NCCK,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에 대북정책 제안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 제의할 필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대북정책 제안을 최근 발송했다.

NCCK는 제안서에서 “남북간 신뢰가 상실된 원인은 상호 체제를 존중하지 않은 것과 기존 합의 이행하지 않는 데 있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남북간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에 무조건적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정상간의 회담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일방주의적이고 북한 의 선(先) 행동을 요구하는 비핵개발 3000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제협력력을 위한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2013 후쿠오카 포럼 개최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상임회장 주남석 목사)이 주최하는 “한복총 2013 후쿠오카 포럼”이 2012년 1월 14일(월) 일본 후쿠오카순복음교회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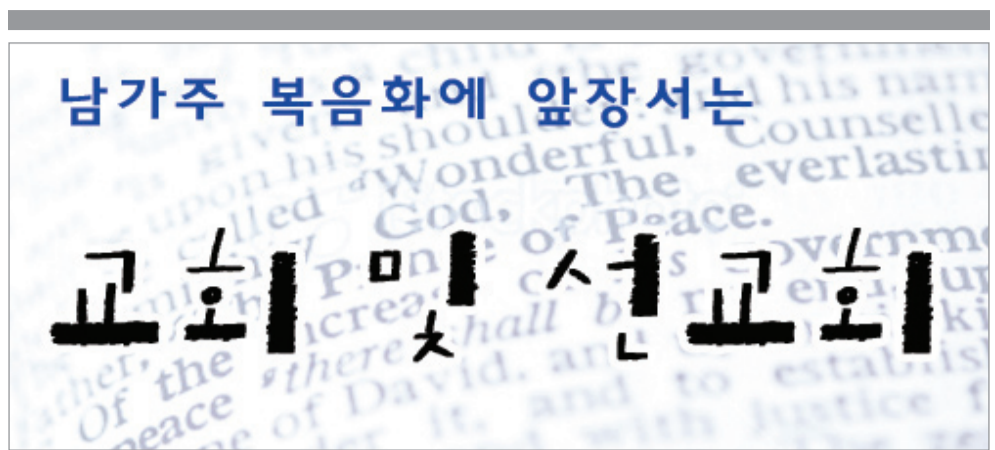
‘경제민주화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가 ‘경제민주화와 사회’라는 주제로, 이재창 목사가 ‘경제민주화와 교회’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아 진행한다.

패널로는 안준배 목사, 김용완 목사, 임병

재 목사, 최요한 목사, 김창근 목사, 손광호 목사, 윤민자 목사 최인숙 목사가 참여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한정국 사무총장의 연임도 확정됐다.

한정국 사무총장은 “연합 운동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합은 깨어지기 쉽지만, 만들면 아름다운 그릇과 같다. 선교계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지 않고 역할 분담을 잘 해서 나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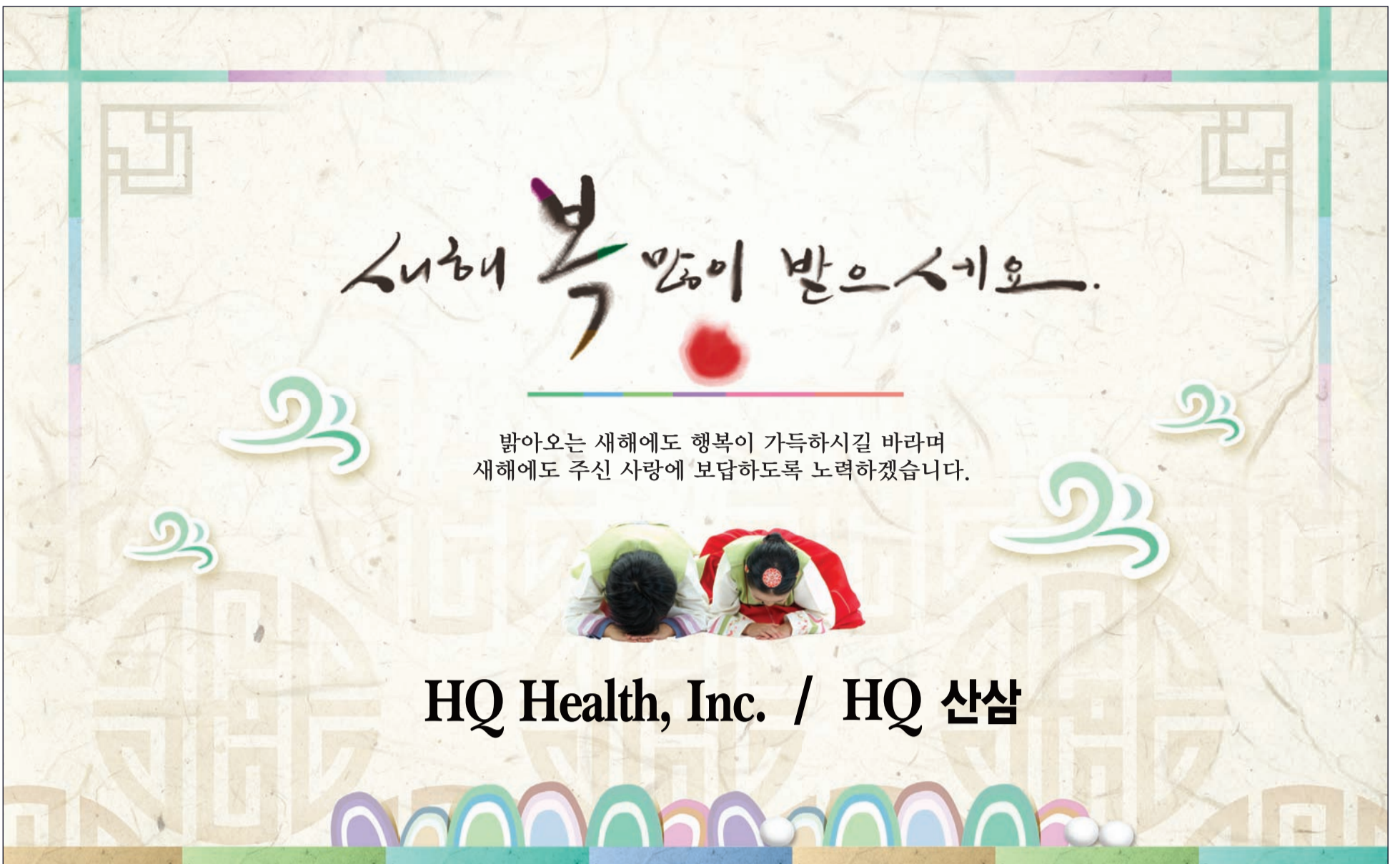
신태진 기자



LA 지역

| | |
|---|--|
|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예배 오전 11:00 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20 갈릴리산교회 믿음으로 그들을 던져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om |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2:3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
|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수/금요일에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
| 김광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 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새벽기도회 2부 오전 6:30 (화-금)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관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일에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
| 정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오전 10:30 (수)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 김요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
|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운타운 4기 Crocker St.) 1부기리예배 오전 7:00 2부서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 최은형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EM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사람들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 |
| 박승부 장로 1712가수루생애촌 현재3기수루생 양성중 -수기서로의료선교사 양성 -약물이나기구나이 순안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LA 2836 w 8th st #106 LA 90005,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마켓 뒤) T. (213) 381-7273 | 조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썬사이드교회 하나님께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
| 김혜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 김세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
| 정장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5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22 EM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2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F. (213) 381-2201 |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3부예배 오후 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말-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
|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
|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 213) 739-0403
 F. 213) 402-5136



신년맞이 특별세일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타 업체보다 2-3배 싼 가격

항상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신년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느 때 보다 더 풍성하게 한 뿌리라도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구연산도 더 많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가시고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년을 맞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산삼도매 한인 최대 유통회사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300여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업체

NY, PA, VA, NC, WI 최상급 산삼 자생지에서만 채취해 옵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상싱하게 보존해 판매합니다. 씹거나 달이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시도록 복용법을 드립니다. 홍삼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드리고 있지만 **진짜 야생 산삼**입니다.

60년~120년근 (15그램~35그램/뿌리당)
정상가 2400불~3360불/파운드
특별 세일가 1200불/파운드
+ 구연산 560불어치(16병) 공짜 선물

산삼 기획 상품 가격표 시행일: 2012년 12월 29일

| 가격 | 무게 | 산삼 수령 |
|-------|--------|-------------|
| \$600 | 210 그램 | 평균 40~80년근 |
| \$200 | 70 그램 | 평균 50~100년근 |



70그램 평균 40-80년근 **소매가 \$1,800 \$200**
* 20-30년근이 모두 품절되어 절호의 기회입니다.



210그램 평균 50-100년근 **소매가 \$3,000 \$600**
* 40-50년근이 모두 품절되어 절호의 기회입니다.



※ 정상 산삼을 그대로 말린 산삼도 고급 산삼 제품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가장 오래되고 최상의 뉴욕 고냉지 산삼(시중 가격 1만불 이상)을 최저 도매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생삼일지라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식품 검역소, 면세통관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모든 제품은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선물 증정

산삼 200불 구입시마다 /2병
구연산 \$80(소매가 기준)

산삼 600불 구입시마다 /8병
구연산 \$280(소매가 기준)

\$30 **\$50**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세일기간 : 1월 31일까지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280불) 100불**
or 오리지널8병 +tax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270불) 100불** +tax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280불) 100불** +tax

3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HQ Health, Inc. / HQ 산삼

100% 환불 보장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만화 준비된 선물

김민정 | 생명의말씀사 | 2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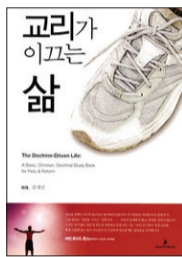
이 책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눈에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양한 예화를 들어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어 누구나 마음을 열고 읽을 수 있다.



교리가 이끄는 삶

김세민 | 밴드오브퓨리탄스 | 460쪽

이 책은 총 33장으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약 1년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교리를 믿음으로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재를 잘 조명하고 있다.



이혼가정의 성인아이들

툼 로저스 | 예영커뮤니케이션 | 2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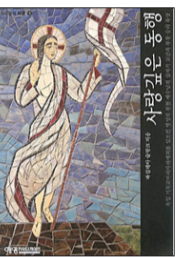
이 책은 이혼 가정에서 자녀나 상처받은 성인 자녀들에게 도움과 희망을 제공할 것이다. 부모의 이혼을 겪고 살아남은 전문치료사의 이론과 방법, 경험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깊은 치유의 세계로 안내해 줄 것이며 궁극적인 자유함을 선사할 것이다.



사랑 깊은 동행

바실레아 솔링크 | 예영커뮤니케이션 | 248쪽

이 책은 기독교의 영적인 기반이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고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관문이자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REVIEW

<해리포터> 마법 잠재운, 英 목사의 판타지 <웜우드>

베스트셀러 <새도 맨서>의 G. P. 테일러 목사 작품

데뷔작 <새도 맨서(Shadow mancer-천사들의 전쟁)>로 전세계를 평정한 베스트셀러 작가 G. P. 테일러가 <웜우드: 어둠의 책(Wormwood·호미하우스)>으로 돌아왔다.

<새도 맨서>는 48개국에서 3억부 이상 판매되며 <해리포터> 시리즈의 조앤 롤링과 곧잘 비교되는 G. P. 테일러는 영국 시골 어촌 작은교회 목회자로 알려져 더 화제를 모았다.

그의 첫 작품은 <해리포터>보다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단숨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 소설, 영국 북차트 15주간 연속 베스트셀러 등에 올랐다. 그의 작품들은 미국 할리우드 유니버설사에 의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다.

테일러 목사는 해리포터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진정한 선악(善惡) 구조를 설파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는 “하

나님의 복음을 재미있게 전파하고자 소설 집필을 시작했다”고 한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전세계 매스컴에서는 테일러 목사의 작품들을 놓고 “새로운 C. S. 루이스가 나타났다”며 흥분했다.

테일러 목사는 어두웠던 유년기와 남다른 청춘 시절의 경험들을 작품에 녹여 생동감 넘치고 실감나는 판타지를 완성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그의 또다른 작품으로는 이외에도 <테르시아스>, <새도맨서 리턴즈>, <벨파이어 미궁> 등이 있다.

18세기 영국 런던에서 출발하는 이번 작품 <웜우드>는 젊은 과학자이자 카발라 마법의 대가인 자만심 가득한 블레이크 박사는 전설로만 내려오는 어둠의 책 ‘네모렌시스’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이다. 그 책에는 해성이 지구를 파괴할 것

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었는데, 블레이크 저택의 하녀이자 호기심 많은 소녀인 에이제타는 주변의 꾀임에 빠져 책을 훔친다.

해성은 계속해서 지구로 돌진해 오는데, 혼란을 틈타 책을 가지려는 ‘사악한 힘’은 검은 마법으로 지하의 유령들과 온갖 어둠의 괴물들을 깨우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다. ‘웜우드’는 C. S. 루이스의 대표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뜻내기 악마 이름과 같다.

이번 작품 역시 영미권에서는 출간 즉시 화제를 일으키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그해 미국 네티즌들이 뽑은 최고 소설상인 ‘웹스’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이대웅 기자



웜우드: 어둠의 책(전 2권) G.P.테일러 | 호미하우스 | 312 · 320쪽

TENOR 김준만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태국 및 미얀마의 불우아동 돕기 자선음악회

- 4p.m. Sunday January 27, 2013
- Immanuel Presbyterian Church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 일시: 2013년 1월 27일 오후 4시
- 장소: 갈보리 믿음교회
- 전화문의: 818.653.5394 (테너김준만), 818.395.2031

축복의 소나기 Showers of Blessing

중앙공쿨, KBS공쿨1위의
Lyric Soprano
최정원

'LA Opera'의 주역가수
Soprano
Shana Blake Hill

'매혹의 소리'
Soprano
황혜경

Soprano
Sharon Hill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높은 은혜의 찬양과 오페라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별출연: Happy Jazz Band

주 최: Happy Village, AMG, 우리방송
후 원: 중앙일보, CTS, 기독교일보, 갈보리믿음교회
문 의: 818.653.5394 · 818.395.2031

새해에는 그릇 셋을 준비하십시오

겸손의 그릇 감사의 그릇 경이의 그릇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담임

계사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인생을 살다보면 겸손하기만 해도 받는 축복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축복을 주마간산(走馬看山)처럼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의 눈에는 걸음마다 구비마다 취할 것이 지천이고 얻을 것이 무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나 고개를 돌리고 멀리하지만 겸손한 사람 곁에는 좋은 친구들의 덕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일시적인 필요 때문에 자세를 낮추는 허식이 아닌, 진심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경적 겸손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새해에는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고 다짐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원망 쪽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쟁의식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은혜만 생각 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제물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가 가정을 부요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진취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문제에 봉착할 뻔 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뿐이지요." 하면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경이(驚異)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삶의 놀라움을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경이'는 '다른 것을 보고 놀라다'는 뜻입니다. 경이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감탄하는 말을 합니다.

"아, 저 산에 덮힌 눈 좀 봐. 세상에 누가 저렇게 온 산을 하얗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혹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 어쩌면 음식이 이렇게 맛이 있지요? 당신 솜씨는 참 놀라워요."

아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얘야, 너 그것 아니? 너의 웃는 그 얼굴은 세상에 어떤 배우의 얼굴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 말이야. 정말 예쁘다."

처음에는 좀 속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사람을 보는 사람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셨으니까요.

새해에는 우리들의 영적인 눈과 지성적인 눈과 감성적인 눈을 함께 하면서 매일같이 '놀라움'을 가득 채워 살아가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제자들이 어찌 자기들은 할 수 없었냐고 예수님께 묻자, 주님이 대답하여 주시길, "기도 외에는 ...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있다면,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묻는다면, 예수님의 답은 여전히 "기도 외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확신하기에 2013년의 성패 역시 얼마나 무릎 꿇고 힘과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도, 다른 비결도, 다른 묘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기도는 강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고, 막힌 담을 헐어 버리고, 새 길을 여는 힘입니다. 기도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며 엎드리는 부흥의 시작이며,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안의 두려움을 청소하는 거룩한 회개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드리는 기도는 시온의 대로를 여는 힘이 있고,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는 구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앞이 캄캄할 때 드리는 기도는 눈을 감을 수록 선명해지고, 몸이 아플 때 드리는 기도는 '내가 밥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

라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확인케 합니다.

1906년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부흥 역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당시 가장 심각했던 흑백의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복음의 파류를 실감했습니다. 아주사 부흥 100년 이후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남가주에 다시 불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저희 교회 인근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졌던 가정의 회복과 반목하던 교인과도 화목이 시작되었고, 어려운 병들에서 놓임을 받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고 묻는다면, 저 역시 예수님처럼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2013년 한 해도 기도로 계속 전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목수가 집을 짓다가 자재가 모자라 급하게 철물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 들어서는 순간 가게 문에 "개조심"이라고 크게 써 붙여 놓은 것을 보고 속으로 '왜 가게에까지 개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가!.....'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주인은 카운터에 앉아 있고, 그 앞에 늙은 개가 사람이 왔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엎드려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 앞에 써 붙인 '개조심' 하라는 개가 바로 이 개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했다. "예! 맞습니다" 이 때 목수가 하도 이해가 안되어 다시 물었다. "저렇게 잠만 자고 있는 개를 가지고 왜 '개조심' 하라고 써 붙여 놓은 것입니까?" 그러자 주인의 대답이 이르렀다. "아 그러고? 개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한 겁니다..."

누가 오거나 말거나 그냥 잠만 자며 사람들에게 걸림돌이나 되는 개는 더 이상 개가 아니다. 개는 도둑이 들어오면, 막 짖어대야 하고,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아 줘야 제대로 된 개다.

이것이 어찌 철물점 '개'만의 문제이겠는가!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남에게 걸림돌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주는 자는 아닌가! 늘 깨어서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올 때마다 내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할 우리가 영적 잠에 취해 누가 오거나 말거나 나만의 편리와 안위에만 빠져 있는 그런 영적 무관심의 소유자는 아닌가?

만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다른 이에게 걸림돌만 된다면, 주인집 철문전 안에서 잠만 자고 있는 늙은 개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문제의 해결은 깨어남에 있다.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 깨어서 있어야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 오는 모든 영적인 공격과 죄의 유혹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을 때만이 영적 무사 안일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결코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불안과 불편함이 아니라 평안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을 선사한다.

새해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이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다. 이 때만이 성도는 건강해지며,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김인호 CPA

562-467-1114
cerriti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주님의영광교회 임직식



주님의영광교회에서는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여 임직식을 갖습니다.
부디 오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목사 외 교우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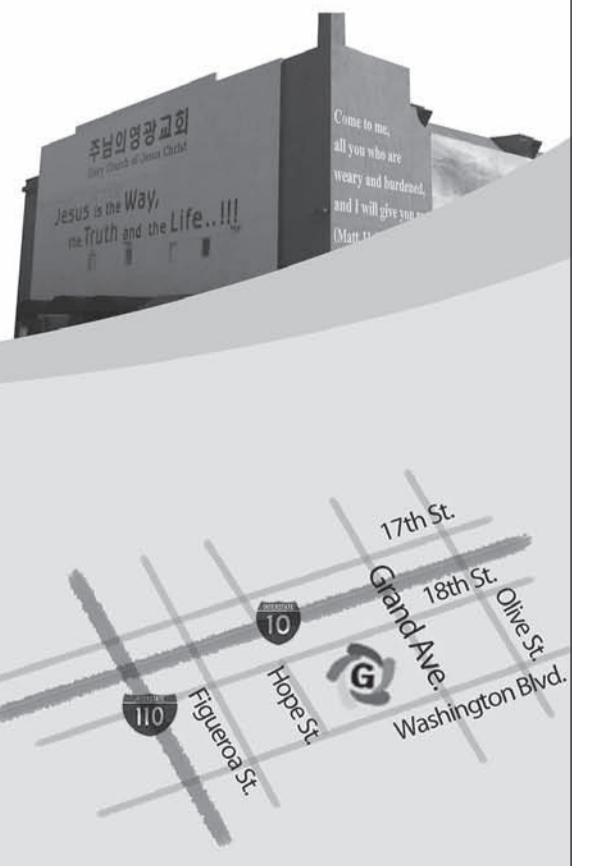
임직자

- 장로장립: 권오성, 노현철, 윤현신, 이광수, 이종환, 임재출, 임제환
- 장로피택: 오석진, 조석주
- 안수집사: 갈명준, 김갑술, 김성환, 김준천, 김준희, 김진민, 스티브리, 박홍범, 오영찬, 우종수, 우종원, 이상운, 이재영, 임병기, 장요섭, 피터전, 전신석, 조덕희, 조옥현, 홍종대, 황찬호
- 권사임명: 김미경, 김숙희, 박캘리, 배경희, 오희순, 이순자, 이영미, 이영희, 이자넷, 임향자, 글로리아전, 정지숙, 조승경, 티나조, 씨니체, 천정란, 홍정현, 황희옥
- 권사취임: 김미영, 민순희, 지예식, 최혜숙

일시: 2013년 1월 20일 (주일) 오후 4:30

장소: 주님의영광교회 비전센터 (Tel. 213-749-450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말씀: 안동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합동 국제총회 총회장)



주님의영광교회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 www.gcjc.org

유동근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

〈제5회〉 요한복음 1장

유동근
한국은누리선교교회목사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는데 율법으로 사람의 약함이나 죄성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사람의 필요를 채우거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죄사함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이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은혜와 진리가 왔는데 이는 온전한 용서와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주는 하지만 치료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수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 안에는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충족함이 들어있다. 나는 이 17절의 말씀도 보통의 말이 아니라고 믿는다. 구약의 모세 시대에는 소위 은혜라는 것이 없었고 진리도 없었다는 말이 된다. 은혜와 진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말이다. 구약의 율법은 은혜가 오기 전에 준비작업에 불과했다. 구약의 예언과 예표 등은 신약의 진리가 오기 전의 예비였다. 실상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신약의 진리(truth, 알레세이아)는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말이다. 영어로 번역할 때 오히려 실제(reality)에 가깝다. 여러분이 햇빛을 등지고 서있다면 그림자가 짙 것이다. 그림자는 실제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는 아니다. 구약의 많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며 그림자로 나타내고 있었다. 심지어 율법조차 그러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다. 그러한 분이 어느 날 실제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셨다. "내가 바로 진리(실체)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진리가 은혜라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은혜이다. 주 예수는 누구인가? 진리이다. 또 누구인가? 은혜이다. 나는 당신이 참으로 그분에게서 은혜를 보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겠다. "우리가 그의 충만 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아니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모세가 한 번 하나님을 보려 달라고 했다.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보지 않겠다고 했다.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잠시 지나가시는 그분의 등을 보여주실지라도 그를 온전히 보여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싶지가 않다고 하셨다. 오늘 날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자신을 똑똑히 나타내보여주지 않느냐,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과 기(氣)는 우주를 창조하신 엄청난 것이다. 고

압전류는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 자가 없다. 그러나 그분이 그분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그분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고 하신다(롬1:20).

더욱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람으로 오신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다고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 내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알라고 하신 것이다(요14:9,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사랑하시고 불쌍한 사람 동정하시고 병자도 고치시는 분이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섭게 심판과 진노하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이 구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하신다.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 그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분은 죄인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고 간음을 해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서 보내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더니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며 용기를 주셨다. 사람들이 달려들어 따져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말해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렇게 사랑스러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피를 흘리시어 죄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인류를 구출해내신 구주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지극한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이것이 꿈이라도 꿀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눌 수 없는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이다. 이런 분이 이 땅에 보내서 영접하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으로 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모시고 살 것인가?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런 분이었구나'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삶이

변한다. 나는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을 엄청 많이 보았다. 나의 고등학교 동창이 여기에 계시다.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는 내가 믿는 사람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 했다. 교회 좀 오라고 했더니 '비오는 날에나 한 번씩 갈까? 좋은 날에는 놀러가야 하나까'라고 했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니깐 친구들이 놀랬다.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변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고기 잡던 시몬 베드로, 갈릴리 어부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 베드로를 지금 누가 어부라고 기억하는가?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대단하게 여긴다. 베드로는 왜 바뀌었는가? 예수를 만나서 바뀐 것이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순간 바뀐다. 사마리아 여인도 왜 바뀌었는가? '당신 누구인가? 메시야가 온다더니...'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예수를 안 순간에 그 여자의 인생이 바뀌었다. 여러분도 거짓되어 믿지 말고 어떤 신념으로 믿지 말고 기록한 대로 예수를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기 바란다.

19-20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 했다. 많은 이들의 질문은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였다. 그 때 요한은 드러내 놓고 자신은 메시야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 대신 요한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야에 대해 밝히 증거하였다. "하나님게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요1:6) 1장에는 요한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온다. 왜 요한을 많이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이다. 구약의 선지자의 기능은 무엇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요한에 대해서 말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나...선지자를 보려더나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는 자니라".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주님은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왜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가? 선지자의 크고 작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정도에 따른 것이다. 이사가야

놀라운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젠가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했다. 예레미야, 에스겔, 마찬가지로 훌륭한 선지자였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면서 소개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동시대에 예수를 전거한 사역을 한 분, 그가 요한이다.

요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구약에서 메시야가 나타나고 메시야의 왕국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엘리야가 나타나야 한다고 했다. 말라기 마지막 장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라는 말씀이 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다가 그분이 죽고 다시 부활하겠다는 여러가지 가르침을 주셨다. 그때 제자들은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하리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너희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했는데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셨다. 메시야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야 한다. 엘리야가 있어야 메시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구약 시대부터 모든 선지자가 이야기하던 그 기쁨부운 받은 자,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요한이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는 약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가죽 띠를 띠었다. 제사장 집안 출신임에도 제사장 같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요단 강에서 세례를 주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인가?' 하고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오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인가?'

〈다음 호에 계속〉

유동근 목사는

유 목사는 대전고과 충남대학교·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미 퍼시픽 신학대학원(Th.M., D.D.), 워싱턴 신학대학원(Th.D.) 등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는 온누리선교교회 담임목사, 미 퍼시픽 신학대학원 교수, 국제선교신학연구원(IMC) 학장, 예장 국제선교연합총회 총회장, 글로벌부흥협의회 총재 등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마태·마가·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등 신약 전권을 강해해 책으로 펴냈고 창세기, 모세5경, 여호수아·룻기, 사무엘상하, 전도서·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등도 출판했다.

미주 제 49차 성경완독집회
2013년 1월 21일-24일

3박4일

성경 66권 완독

신구약 66권 전권을 3박4일(약 50시간)에 통독하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합니다. 성경 읽기가 재미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지며,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훈련입니다. 본 성경통독과 암송훈련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 일시** 2013년 1월 21일(월)-24일(목)
- 장소** 갯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Tel: 909.983.0994 / Cell: 909.268.4279
- 주최** 미주요한선교단(대표: 안성기 목사)
The John's Mission USA
Tel: 708.307.8280
- 참가대상** 교역자, 선교사, 제직, 평신도, 학생 및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
- 참가비** 1인당 \$70(숙식비 포함)
- 등록** 1월 21일 당일 오전 9시 - 10시
- 준비물** 성경(개역)과 찬송, 세면도구, 담요 또는 슬리핑백
- 개회예배** 1월 21일 오전 10:00
- 수료식** 1월 24일 오후 6:00
- 특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방법
T-QT 세미나 - 다윗의 경건생활 모범



주최: 말씀사랑운동 미주요한선교단 후원: 갯스윌 연합교회, 기독일보, 인랜드지역교역협회, 크리스천헤럴드(라디오방송 AM 1650), 할리웃순장로교회



HEALTH & LIFE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지난해 여름, 저의 새 책이 출간 되었습니다. <엄마가 쓴 심리치료 편지-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이 책은 첫째와 10년의 터울로 뒤늦게 태어난 둘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쓴, 편지 형식의 책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받았던 크고 작은 상처가 이 아이를 힘들게 하거나 심리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틈틈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써 두었던 편지 봉지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출판사 대표께서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의 둘째 아이인 예준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해내고 지금은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준이처럼 상처입은 아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또 이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의 심리를 몰라 당황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책은 만들어졌습니다.

에필로그 중, 책에는 실리지 못한 일부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읽는 분들에게 사랑과 따뜻함과 치유적인 메시지로 다가 마음을 적시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엄마의 편지를 읽으면서 심리적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하는지 알았을 거야. 우리는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자신이 준 상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분노하고 죽이기 까지 하는 거란다.

반면에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보이지. 자신이 가족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보인단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속히 치유해야 하는 거란다.

제일 큰 문제는, 자기는 상처가 없다고 우기는 행위야. 실제로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이 많단다. 그런 사람일수록 가족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정작 자신은 그 사실을 절대로 모르는 거란다.

예준아, 너의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씩 치유해 가져구나. 이미 치유된 것도 있고 아직 치유해야 되는 것도 있지? 네 안에 상처가 가득하면 늘 불만과 짜증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늘 불행한 느낌이 들 거야.

상처받은 내용을 적어보고 그때

받은 느낌과 감정을 하나씩 적어놓고 풀어 해쳐 봐. 그리고 뭐든지 엄마한테 말해도 돼. 네 마음의 말을 모두 들어줄 거야. 때때로 엄마가 너무 바빠서 너와 대화할 시간이 없어 보일 때도 있을 거야. 그래도 눈치 보지 말고 엄마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해.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네 말에 귀 기울여 줄게.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사랑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감정이 있을까? 지난봄 너와 함께 했던 유럽 여행에서 엄마는 너에게 새로운 사랑의 수많은 색채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낯선 나라에서 본 낯선 풍경 속에서 우리 모자는 서로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확인했었지. 그렇지?

낯설다는 것은 불안을 불러일으키지. 우리는 모두 익숙한 것을 편안해하잖아. 익숙하지 않은 낯선 풍경, 낯선 얼굴들, 낯선 거리, 낯선 음식, 낯선 문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불만에 떨게 만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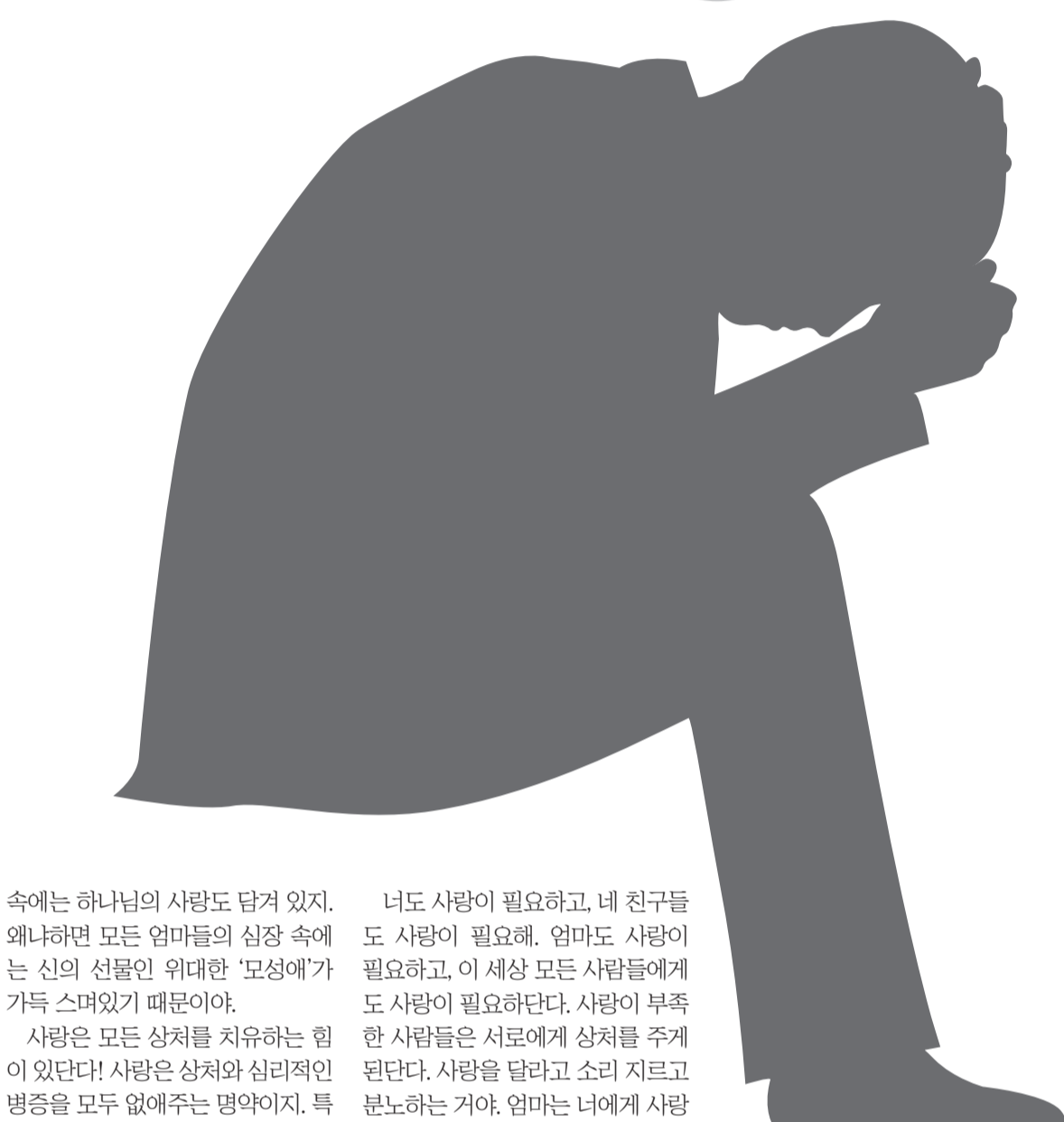
어쩌면 여행은 이러한 불안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 주는 가장 좋은 기회인지도 몰라. 우리가 지나왔던 짧은 여정의 아름다운 나라들에서 예준이와 엄마는 불안을 뛰어넘은 위로와 평화를 맛보았어.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밀라노. 골목마다 즐비한 이국적인 건축물이 너무 아름다웠지만 또한 수백 년씩 묵은 건물의 위용에서 나오는 두려움도 함께 느꼈지.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은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마음을 파괴하진 못했어. 더구나 그 여행길에서 새롭게 일어나던 사랑과 친밀감이 낯선 두려움도 이기게 만들었지.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는 에텔바이스가 지천으로 피어 있었고, 엄청난 높이의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동안에도 엄마의 마음속에서는 평화를 담은 사랑을 너에게 보내고 있었어. 프랑스의 기차역, 기차하니? 낯선 도시의 낯선 기차역에서 우리는 거기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파리로 가는 기차를 기다렸지.

엄마도 혼자였다면 아마 두렵고 불안했을 거야. 아무리 어른이라도 생전 처음 가보는 낯선 길에 혼자 서 있다면 무서운 법이지. 그런데 엄마는 너와 함께였기 때문에 조금도 무섭지 않았단다. 무서워하지 않고 그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어. 너와 함께 낯선 이국의 거리를 걷는 동안 시간은 느릿느릿 흘렀어. 평화로운 기분에 젖어서 오랜만에 너무 큰 사랑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지.

예준아, 사랑한다. 엄마의 사랑이 이후에 닥칠 불안과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해줄 거라 믿어. 엄마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지. 왜냐하면 모든 엄마들의 심장 속에는 신의 선물인 위대한 ‘모성애’가 가득 스며있기 때문이야.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단다! 사랑은 상처와 심리적인 병증을 모두 없애주는 명약이지. 특히 사랑을 받으면 아주 빨리 치유되는 병이 있는데 바로 우울증이란단다. 우울증은 사랑을 못 받아서 생기는 병이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면 사랑을 주거나 받는 기능이 마비가 되어 버려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게 된단다. 그만큼 사랑의 부재는 큰 문제를 낳지.

너도 사랑이 필요하고, 네 친구들도 사랑이 필요해. 엄마도 사랑이 필요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하단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된단다. 사랑을 달라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는 거야. 엄마는 너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줄게. 넘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렴. 사랑은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단다. 아니 더욱 넘쳐 흐른단다.

아, 다시 한 번 그날, 알프스의 맑은 산 아래로 가고 싶구나. 네 손을 잡고.....”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원장

생활한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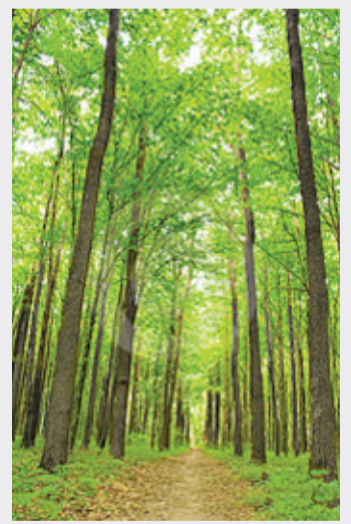
치유. 프랑스의 의사 다비드 세르방-슈레베르가 지은 책 제목입니다. 다비드 세르방-슈레베르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인지신경학 연구를 한 분입니다. 책의 내용은 우울증이나 불안, 스트레스, 화를 잠재우는 특별한 7가지 방법을 연구한 것입니다.

이런 신경정신과적인 면의 치료는 프로이트의 지금까지의 연구나, 자주 쓰이는 신경 안정제인 프로자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을 하네요.

한국에서도 우울증이나 불안, 불면, 조울 등의 질환에서 프로자 같은 신경정신과 약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 분이 연구한 바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SNS가 그렇게 급속도로 퍼지는 것도 어찌보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라는데, 바빠지면서 그만큼 서로를 위한 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랑한의원 박용환 원장



WIN HYUNDAI at El Monte

| | | | |
|---|--|--|---|
| <p>ELANTRA COUPE GS 2013 3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 \$5,450 Total drive off: \$6,450 Security Deposit: 0 TERM: 36 Miles per Year: 12,000 Cents a mile in excess: 20</p> <p>Lease \$89 per month plus tax</p> | <p>SANTA FE SPORT FWD 2.0T 2013 3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 \$5,950 Other Rebates: \$500 Total drive off: \$7,450 Security Deposit: 0 TERM: 36 Miles per Year: 12,000 Cents a mile in excess: 20</p> <p>Lease \$259 per month plus tax</p> | <p>SONATA HYBRID 2013 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 \$6,075 Other Rebates: \$2,500 Total drive off: \$8,575 Security Deposit: 0 TERM: 36 Miles per Year: 12,000 Cents a mile in excess: 20</p> <p>Lease \$198 per month plus tax</p> | <p>ACCENT GS 2013 3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 \$5,865 Other Rebates: \$500 Total drive off: \$6,365 Security Deposit: 0 TERM: 36 Miles per Year: 12,000 Cents a mile in excess: 20</p> <p>Lease \$79 per month plus tax</p> |
| <p>한인담당 Alex Shin</p> <p>www.winhyundai.com</p> <p>El Monte</p> | | <p>■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p> <p>■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 환영</p> <p>■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p> <p>■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p> <p>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1월 21일까지입니다.</p> <p>Assurance</p> <p>Tel. 888.409.3002</p> | |
| <p>America's Best Warranty*</p> <p>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p> <p>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p> | | <p><small>*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small></p> | |

COVER STORY



이스라엘 탐방 이주섭 목사

축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눅 2:3-7)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마을은 유다 산지에 위치한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쪽 약 8km 떨어진 곳에 있다. 베들레헴은 현재 팔레스타인의 큰 도시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으면 세계 각국에서 오는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많은 기독교 순례자들은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Nativity Church)를 방문한다.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에 속한다. 이 교회는 327-339년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건축했다.

이후 6세기에 화재로 파괴된 교회를 565년 황제 유스티니안(Justinian)이 재건축했다. 이후 탄생 기념교회는 614년 페르시아의 침략과 1009년 무슬림의 al-Hakim 통치 때에도 파괴되지 않고 남았다.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께서 굴(cave)에서 태어나셨다고 믿는다.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를 동굴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굴 위에 건축된 교회로 믿게 됐다. 예수님은 정말 굴에서 태어나셨는가?

예수님께서 굴에서 태어나셨다는 생각은 순교자 저스틴(100-c. 165 AD)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저스틴의 저서 트리포와의 대화(Dialogue with Trypho)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 외곽의 한 동굴을 은신처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다. 요셉은 마을 근처의 한 동굴에 거처를 정했다. 그들이 이곳에 머무는 중에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해산했고, 구유에 누웠다.

아라비아에서 온 박사들은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Joseph took up his quarters in a certain cave near the village; and while they were there Mary brought forth the Christ and placed Him in a manger, and here the Magi who came from Arabia found Him).

알렉산드리아 출신 오리겐(185 c.254)의 글이다: 베들레헴의 동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고, 동굴에 있는 구유에 예수님은 강보에 싸여 누이셨다. 이 지역과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의 이야기는, 이 동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이다(In Bethlehem the cave is pointed out where He was born, and the manger in the cave where He was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And the rumor is in those places, and among foreigners of the Faith, that indeed Jesus was born in this cave who is worshipped and revered by the Christians).

저스틴의 생각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첫째, 예수님은 베들레헴 외곽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마 2:1, 눅 2:11).

둘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날 밤에 메시아를 경배한 이들과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였다(눅 2:12).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였다(마 2:1-12).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산하던 날에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구유에 누웠지만, 그 다음 날, 며칠 지난 후에도 계속 구유에 누인 채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아기 메시아를 돌보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동방의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마 2:11)' 예수님을 경배할 때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던 때로, 저스틴은 이런 상황을 간과하였다.

셋째, 저스틴의 생각에 오류는 이스라엘 시대의 집 구조를 몰라 '구유에 누웠다'는 말에 기초하여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동굴로 연결시켰다. 예수님은 동굴 보다는 가축과 함께 생활하는 집의 축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옳다.

이스라엘 시대의 집 구조를 본다. 이스라엘 시대의 전형적인 주택 구조는 사람과 가축이 함께 거하는 집이었다. 집 구조는 두 줄로 기둥들을 세워 지붕을 받쳤다.

집의 내부는 기둥을 중심으로 세

구역으로 나뉘었으며, 안쪽에 또 하나의 방을 마련한 네 개의 방이 있는 집(four room house)으로 또는 기둥을 세운 주택이기에 기둥 집(pillared house)으로도 부른다.

기둥으로 받친 옥상은 돌리를 사용하여 흙이나 석회를 깔고 평평하게 다졌다. 그리고 옥상에 이층 방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래층은 가축의 축사, 음식을 저장하는 창고, 음식을 요리하는 부엌, 가내 작업 공간으로 이용했으며, 위층은 가족의 침실로 사용했다.

첨부한 그림을 참고하면, 집의 중앙에 불을 피운 화덕이 있다. 화덕 밑에는 한 여인이 멧돌을 사용하여 곡식을 갈고 있다. 그리고 화덕 위에는 석회암을 파서 만든 물 웅덩이에서 물을 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옆으로 한 여인이 서서 직조틀에 직물을 짜고 있다. 집으로 들어가는 문 왼쪽으로 축사가 있다.

그 축사 위의 이층은 가족의 침실

이다. 침실을 축사 위층에 만든 이유는 겨울철 가축으로부터 온기가 위층으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층의 침실은 한 가족이 충분히 잠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다.

베들레헴은 동쪽 유대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돌볼 수 있으며, 마을 가까운 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촌 마을이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밤에 마리아와 요셉은 이층 방과 같은 여유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가축의 축사를 이용했고, 이곳을 해산의 장소로 이용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강보로 싸서 축사의 구유에 누웠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벗어난 마을 외곽의 동굴이 아니라 마을에 위치한 일반 주택의 축사가 유력하다. 그러므로 인류의 첫 크리스마스 가정집의 축사에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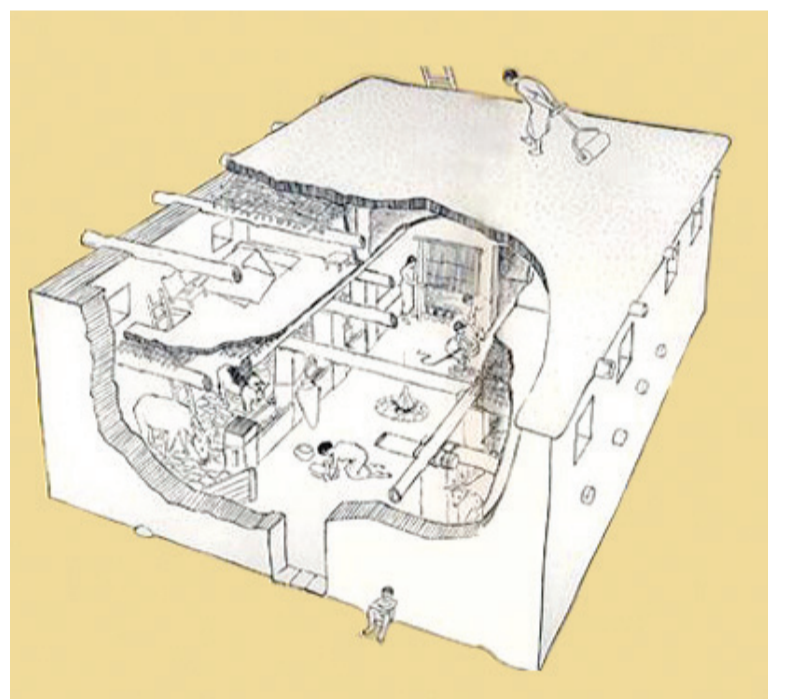
이주섭 목사

- 현) 두루Tentmaker(www.eduru.co.kr/두루투어/두루예유/두루문화원) 고문
- 현) 조지아 크리스찬 대학교 (Georgia Christain University) 역사 지리학과 교수
- 현) 성서지리연구원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 원장
- 전) 예루살렘 대학 역사학과에서 고대 성읍, 허브리 대학 고고학과에서 고대 도로를 수학
- 전) 4X4 지프를 이용하여 방문 가능한 모든 성경적인 유적들을 탐방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의 전경. 주후 4세기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에 의해 건축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주택의 모습, 네 개의 방이 있는 집(four room house) 또는 기둥을 세워 건축한 집이기에 기둥 집(pillared house)이라 부른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2013년 신[편]입생 모집

- ◆ 봄학기 개강일 : 1월 28일 (월)
- ◆ 모 집 : 대학부(신학-고등학교 졸업자)
신학대학원(대학 졸업자)
구비서류 등 입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www.ptsa.edu)입학안내를 참조할 것.

- *본교는 미주지역 한인 최대 교단인 해외한민장로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직영 신학교로 졸업 후 KPCA교단에서 목사 안수 가능.
- *본교에서 2년 수학 후 졸업할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총회 목사 고시 후 목사 안수 가능.
- *본교 졸업 후 KPCA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후 미국장로교(PCUSA) 소속 교회 이명 가능.
- *다양한 장학 제도.
- *캘리포니아 주정부교육국(BPPE) 인준된 학교로 성서대학협의회(ABHE) 정회원, 신학대학협의회(ATS) 준회원임.

이번 학기부터 신설된 ESL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강사들은 영어 전공자이거나 테솔(TESOL)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입니다.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합니다.

- ◆ 봄학기 개강일 : 1월 28일 (월)
- ◆ 구비서류등 입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ptsa.edu)나 본교 사무실로 문의요망.



이사장 김인식 목사
총 장 이상명 박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 www.ptsa.edu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판매 김기형

Excel Legal Center(엑셀법률센터)

- 영주권, 시민권 신청
- 주식회사,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
- 혼인, 이혼, E2 투자
- 민사, 퇴거(Eviction), 파산
-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 소액재판(small court claim)

☎ 213-365-6622 (67+ 사무스베일러앤드대학원 환생빌딩)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 90057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 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방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허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용/가정용 가구수리

스파 (714)222-9792 562)943-7101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Living water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 미국 FDA 세계 최초 승인
- 러시아 GOST 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 높고 중금속 제거 및 살균작용
- 수질안전, 이온 활성화, 경제성 확보
-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 반영구적 집안, 밖 100% 사용
- 산업, 상수도, 빌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usa.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튜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부/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인디안 알로에 베라 신제품 알로에-에타글루루판 로션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관약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당뇨,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 제작관리 및 수정

쇼핑몰, 게시판 관리

다양한 디자인 배너제작

start from \$499

제작문의 213.587.3498

유익중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중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란드 신안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Value Windows & Doors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스마트 월드 FUJITA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원래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살리핀! 자동차 핸들 커버 \$300 (정액) 음이온-양극성 발생

졸음 운전 때문에 교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로테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 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주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월록,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WWW.PHHYUNDAI.COM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

2013 EQUUS Signature



\$559 48Month leas /12k mile/ T.D.O 5,999
 MSRP \$60,150
 PH HYUNDAI D/C \$3,582 LEASE CASH \$1,500
 COMP. REBATE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TAX (STK. 066542)

2013 SONATA GLS



\$92 48Month leas /12k mile/ T.D.O 5,999
 MSRP \$22,175
 PH HYUNDAI D/C \$684 LEASE CASH \$1,5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TAX (STK. 589865)

2013 ELANTRA GLS



\$55 36Month leas /12k mile/ T.D.O 5,999
 MSRP \$19,015 PH HYUNDAI D/C \$427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TAX (STK. 248683)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스티브 장 제니 김 찰리 정
 626.513.4006 626.513.4683 626.513.4981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